



노후활동지 학생양

점옥이

오승민 그림책

#여순항쟁 #여수순천1019사건 #전쟁 #전쟁과어린이 #역사 #가족 #상처 #회복 #평화 #추모

교과연계

누리과정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책 소개

1948년 10월 19일, 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점옥이라는 인형의 눈으로 아름답게 그린 『점옥이』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마디인 여순항쟁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합니다. 한 편의 시와 같은 글과 인형의 눈에 비친 어둠과 비극의 순간을 풍성한 은유에 담은 그림은 시리도록 아름답지요. 오승민 작가는 집요함에 가까운 몰입으로 완성한 그림책을 통해 과거의 한 장면을 우리 앞으로 성큼 불러왔습니다. 그 부름에는 허투루 태어나고 지는 꽃은 없다는 슬픔 속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일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터전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시대의 혼란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모 세대와 그 부모 세대들의 시간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기억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은 전쟁 중이고, 전쟁터 한가운데로 내몰린 어린이들의 아픔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으며 평화의 염원을 담고 있는 『점옥이』는 전쟁과 이데올로기, 어린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비유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은이 오승민

2004년 첫 그림책 『꼭꼭 숨어라』를 내고 어린이 책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앨리스의 이상한 헤어살롱』 『오늘은 돈가스 카레라이스』 『붉은신』이 있습니다. 이 외에 그림책 『우주 호텔』 『나의 독산동』 『나는 안중근이다』 『보름달』 『초원의 법칙』 『삶은 여행』 『의자에게』와 많은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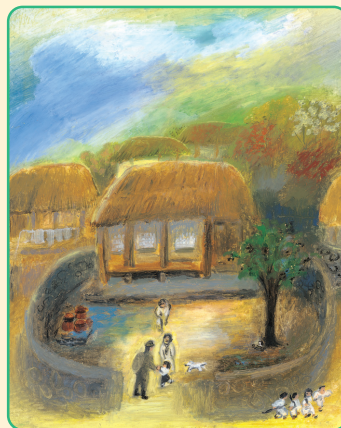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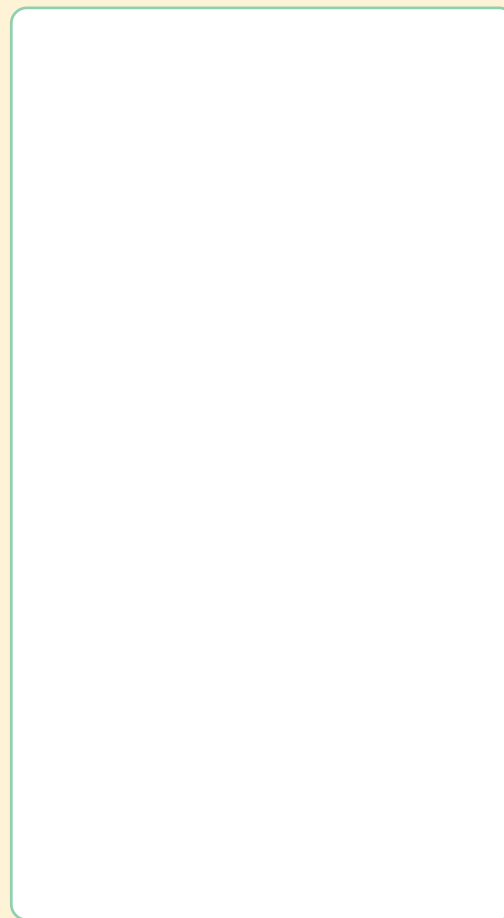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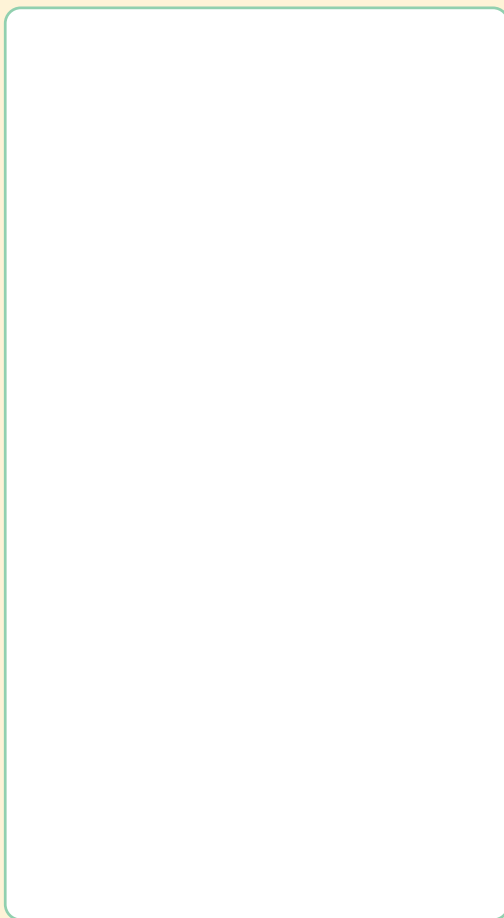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and a decorative scroll-like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response to the book cover.

1.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큰 새가 날아오기 전 평화로웠던 마을의 풍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빈칸 안에 자유롭게 평화의 이미지를 그려 보세요.



2. 큰 새가 까만 씨앗을 떨어뜨리면서 엄마, 언니, 백구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큰 새는 무엇이고 까만 씨앗은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도망가게 할까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큰 새는

_____입니다!

까만 씨앗은

_____입니다!

★ 어휘력 쑥쑥 ★

1. 다음 문장과 관련된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세요.

보기

야옹야옹, 캉캉, 오들오들, 쑥쑥, 쑥쑥, 부르르

- 백구는 새를 쫓아내려고 _____ 짖어.
- 쇠 모자를 쓴 사람이 소리쳤어. 백구는 _____ 떨어.
- 그러는 동안 오동나무는 _____ 자랐어.

2. 1번 문제에 적은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세요.

보기

컹컹, 킁킁, 덜덜, 까악까악, 무럭무럭,
길길, 모락모락

- 백구는 새를 쫓아내려고 _____ 짖어.
- 쇠 모자를 쓴 사람이 소리쳤어. 백구는 _____ 떨어.
- 그러는 동안 오동나무는 _____ 자랐어.

1. 책에 등장하는 풀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따라 그려 본 후 간략한 특징을 써 보세요.

	그림	특징
바랭이		
엉겅퀴		
개망초		

1. 큰 새가 날아온 이후에 마을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빨강고 파랑계 마을이 불탔다.
- ② 엄마와 언니가 피난을 갔다.
- ③ 쇠 모자를 쓴 사람이 백구를 총으로 쏘았다.
- ④ 점옥이도 함께 도망쳤다.

2. 혼자 남겨진 점옥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며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언니가 자신을 데려가지 않아 서운하다.
- ② 언니가 미워서 그립지 않다.
- ③ 소리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어서 무섭다.
- ④ 백구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어 속상하다.

3. 전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평화를 무참하게 깨 버린다.
- ②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질 수 있다.
- ③ 모두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
- ④ 전쟁의 슬픔은 금방 잊을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외롭게 누워 있는 점옥이 주위에 꽃을 오려서 붙여 보세요.



이미지: Freepik.com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

문지아이들
신간 소식

